

# 무주군, 내년도 국가 예산확보 총력

국회 찾아 폐기물매립시설 확장·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 등 적극 건의

무주군이 2026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관련 공무원들과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을 만나 무주군 핵심 현안 사업 추진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국회 단계에서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3단계, 총사업비 49억 원),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총사업비 187억 원)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2단계 통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매립시설 확장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은 '자연특별시 무주'의 생태관광 및 치유관광 거점으로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주군의 지역발전 기반 확충을 위해 교통,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관련 공무원들과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만나 무주군 핵심 현안 사업 추진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회 심의 단계인 만큼 정책적 공감대 형성과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 “무주의 생태·자연·치유 자

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 장수군 일자리 박람회 30일 개최

장수군 로컬JOB센터(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2025 장수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주요 기업 10여 개가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20개 기업은 간접 채용 방식으로 참여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박람회장에는 △취업 정보 제공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이민자 대상 비자 상담 등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업 타로 △지문적성검사 △이(귀)침 치료 △퍼스널컬러 메이크업 등 다양한 부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긴장을 풀고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을 제공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군, '찾아가는 태권영재발굴 프로젝트' 눈길

무주군이 교육발전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태권영재발굴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태권영재발굴은 무주군이 세계 태권도 성지로서 태권도를 활용한 진로 교육과 영재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11월 3일까지 지역 내 초·중·고교학생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14일에는 무주중앙초, 20일 무주중학교에서 진행했으며 24일과 31일에는 무주중학교, 28일에는 설천초등



학교, 11월 3일에는 무주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반의 태권도 경기를 체험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체력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분석해 태권도 유망 인재를 발굴한다는 방침으로, 맞춤형 기술 피드백 및 리포트 제공, 태권도 전문가의 진로 상담, 인성교육도 진행한다. 체육 특기자들에게는 진학 정보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허준철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태권도팀장은 “가상현실 기반의 태권도는 2023년도에 이미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종목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미래 태권도 인재 육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의회는 22일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시범지역의 대폭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에 강력히 건의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해야”

진안군의회, 시범지역 대폭 확대·국비 부담률 상향 강력 건의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22일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시범지역의 대폭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에 강력히 건의했다.

동창욱 의장은 “전국 6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더 많은 농촌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안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2년간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진안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대상지에서는 제외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산물벼 수매현장 점검·현장 의견 청취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산물벼 수매가 한창인 진안농협 벼 건조·저장 시설(DSC)을 방문해 시설 운영 상황 점검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진안군은 미국종합처리장(RPC)이 없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농가의 원활한 수매를 돕고자 지난 2020년 100톤 규모의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는 60톤 규모의 건조 시설을 추가로 확충했으며 기존의 토크 매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매통 150개를 지원해 농가들의 인력 부담을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같은 진안군의 지속적인 시설 확충은 고령화 및 벼 재배 기계화로 인해 늘어나는 산물벼 수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진안농협은 올해 10월 말까지 일반 벼와 찰벼 약 2,600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진안농협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이상고온과 비탈기 피해로 산물벼 수요가 급증했으나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건조 대기 시간이 길어져



수발아와 부패 등 품질 저하와 매입 지연이 발생했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수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진안군은 이날 시험 가동 중인 신규 건조 시설을 비롯한 수매 편의성 증대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전춘성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과 노력을 다해 고품질 쌀 생산에 힘써 주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다”며, “이번 시설 확충으로 농가의 수매 부담을 덜고, 더 좋은 품질의 쌀 생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 통

### 진안군, 2026년 양대 체전 상징물 선정

진안군이 2026년 진안에서 열리는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징물을 선정했다. 군은 슬로건,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등 4개 부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총 8점의 수상작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슬로건 부문 당선작은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 되는 전북도민’으로, 전북도민이 하나 되어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대회의 의미를 담았다.

엠블럼은 마이산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진안을 의미하는 영문자 ‘J’를 형상화해 스포츠의 도전정신과 지속가능한 내일로의 비상을 표현했다. 마스코트는 진안군 대표 캐릭터 ‘빠판’과 이를 모티브로 한 여성 캐릭터가 함께 선화를 들고 달리는 모습으로, 활기찬 체육 축제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포스터는 마이산을 배경으로 역동적으로 질주하는 선수의 모습을 담아 양대체전의 열정과 통합을 상징적으로 그려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정복 장수군의원, 장계천 활용 발전 방안 제안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은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계천에 흐르는 장계천을 문화, 관광,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해석하고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정복 의원은 하천의 가치를 군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제시하며, “하천을 단순한 물길만이 아닌, 문화와 관광,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해석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위터스크린·음악분수 등을 활용한 ‘매력적인 야간경관 콘텐츠 조성’ △산책로·캠핑장·먹거리 특화 거리를 포함한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농특산물 플라마켓과 문화 공연으로 ‘지역 고유 문화와 자원 접목’ △수질 개선과 생태 보존을 병행하는 ‘친환경 개발 추진’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